

Coaching

2024 AUTUMN Vol.50

코칭컨퍼런스 키노트스피커

구범준 세바시 대표

KCA코칭역량해설 출간 이야기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코칭과 AI의 미래

세계상을 바꾸는 시간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아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사)한국코치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여름은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이제 그 더웠던 여름을 지나 추수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코치님들께서도 그동안 최선을 다해 추구해 오셨던 활동 등에서 뜻하셨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협회는 국내 대표적인 코치 인증기관으로,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5,534명의 인증코치를 배출하였으며, 4,863명의 회원, 43명의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명예코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83개의 인증 프로그램, 58개 KAC 인증기관, 74개 MOU 체결기관이 있습니다.

협회는 인증코치들의 역량강화교육과 우리 사회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공익코칭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사발전재단 주관 중소기업 CEO코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코칭 문화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가을엔 <너와 나의 행복코칭, 인간 중심의 코칭연구>라는 주제로 9월 마지막 토요일, 송실대에서 제6회 코칭 학술대회를 진행했고, 10월 10일 목요일에는 <행복으로 가는 여정, 코칭에 길을 묻다>라는 슬로건으로 제21회 대한민국 코칭컨퍼스티벌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사회에 코칭문화를 확산하고자 올해도 기조강연을 포함하여 비즈니스/HR 코칭, 청소년/뉴트렌드 코칭, 라이프/커리어 코칭 세션에서 수준 높은 강연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 강조하는 것처럼 지금은 <코칭과 코칭 리더십> 시대입니다. 우리 코치님들이 사회에 기여할 기회가 점점 확대될길 소망하며, 코치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한국코치협회 회장 김영현

Coaching

2024 AUTUMN VOL. 50



02



16

(사)한국코치협회 협회지
〈Coaching〉 2024년 AUTUMN (통권 제50호)

발행처 (사)한국코치협회(02-563-8798, www.kcoach.or.kr)
발행일 2024년 10월 1일
발행인 김영현
편집인 진권
편집장 김숙자
편집위원 신정순, 유덕중, 윤영식, 이성미
디자인 옛지피앤디

COACHING의 창을 열며

ASSOCIATION OF NEWS

- 06 KCA코칭역량해설 출간 이야기
- 08 중소기업 CEO 코칭 포럼
- 10 공익코칭 사업
- 14 모집합니다!

PEOPLE FOCUS

- 02 세바시 대표의 네 가지 질문_ 구범준
- 16 코치다움과 코칭다움 사이에 코나투스가
살아가고 있다_ 유명만
- 19 [우문현답]_ 유정민/홍의숙/최현정
- 22 나는 (마음소리) 코치다_ 한미옥

COLUMN

- 24 코칭과 시의 미래_유덕중

KCA 사랑방

- 27 코치님들의 힐링 스페이스는?

Keynote Speech Speaker,

세바시 대표의 네 가지 질문

글, 인터뷰 신정순 (홍보위원회 편집위원 / KPC인증코치)

편집 김숙자 (홍보위원회 편집국장 / KPC인증코치)



구범준 | 세바시 대표PD, 대표이사

- 1997. 2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학사 졸업
- 1997.12 CBS 공채 21기 PD 입사
- 1998~2001 CBS 라디오국 PD
- 2001~2013 CBS TV국 PD, 세바시 기획 연출
- 2013~2016.4 세바시 팀장
- 2016.4~2017.4 뉴스뱅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 2017.4~현재 (주)세상을바꾸는시간15분 대표이사

키노트 스피커로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한국코치협회의 제 21회 코칭컨퍼런스 슬로건이 “행복으로 가는 여정, 코칭에 길을 묻다”라고 듣고, 저는 코치가 아닌데 어떻게 코칭에 길을 물어야 하는지 고민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코칭컨퍼런스에는 코치뿐 아니라 일반인도 참석하는 것을 알고 조금은 용기가 났습니다.

‘코칭이라는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오히려 행복에 포커싱을 맞추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바시를 만들었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일, 태도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는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아 강연보다는 재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나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네 가지 질문들’에 대한 내용으로 강연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세바시 강연은 결국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출생·학벌·직업과 같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뭔가 의미를 만들어낸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만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경험들이죠. 그래서 경험이나 지식, 자기 생각들을 바탕으로 울림이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냥 ‘나 잘 살았다, 뭐 상도 많이 탔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스스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세상에 의미를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결국,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성공 스토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네 가지 질문

나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으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만의 생각과 행동만이 오직 나만의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입니다. 나만의 업(業)의 이유를 스스로 묻는 것입니다. 일의 성공과 실패는 그 이유를 먼저 따지고 알아야 합니다. 일의 순서에서 이유를 가장 먼저 묻는 것은 그 일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은 새롭게 보는가?>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 혹은

우리에게 유용했던 것들이 가장 빠르게 사라지거나 쓸모 없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과 낡은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과 나만의 정의(definition)를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낫선 것과 친한가?>입니다. 평소엔 하지 않는 일에 도전하기를 꺼려 해서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익숙하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는 변화와 성장은 그 짝을 띄우지 않습니다. 가지 않은 길에 발을 내딛고, 하지 않은 것들에 손을 내미는 것만이 나를 성장시킵니다. 낡은 것은 오로지 낫선 것을 통해서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나는 나를 믿는가?>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건 자신이라고 대답합니다. 포기, 좌절, 무기력, 무관심 등 대부분의 부정어들은 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됩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 나의 가장 믿음직한 응원자는 바로 자신이어야 합니다.

2024 코칭컨퍼런스 강연에서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코치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일종의 셀프 코칭 같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세바시 소개와 성장 스토리

'세바시'는 2011년 CBS TV국에서 시작해 6년 만인 지난 2017년 4월 CBS 자회사로 나와 주식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처음 TV국 프로그램 개편 워크숍에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새 프로그램 기획안을 발표했을 당시 저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대부분 낯설고 의아해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강의 프로그램은 보통 스튜디오에서 비공개로 제작되는데 세바시는 공개녹화를 위해 400석짜리 클래식 콘서트홀을 대관하고, 강의의 길이도 15분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유명 대학 교수나 작가, 기업 대표 등 '권위'에서 벗어나 '경험과 아이디어'에 중심을 두어 시민운동가나 청년 대학생, 스타트업 대표, 평범한 직장인을 강연자로 세웠습니다. 강의 프로그램의 정의를 바꾸게 된 것이죠. 매달 10~12명씩 배출되는 강연자들은 이 프로그램의 지지자가 되었고, 이들이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바시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세바시가 가장 혁신적이었던 지점은 확산 방식 때문입니다.

저는 세바시의 공개와 확산 채널을 온라인으로 잡고 다음TV팟, 유튜브, 팟캐스트, 페이스북 등 검색 포털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국 방송사 최초의 디지털 콘텐츠였던 셈인데, 유튜브가 2011년 이후 새로운 영상 미디어 플랫폼으로 빠르게 사용자를 늘려가면서 세바시는 유튜브에서 유일한 한국어 교양 강연 콘텐츠로서 자리를 단단하게 잡게 되었습니다.

2020년 9월, 세바시는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하며 '골드 플레이 버튼' 보유 채널이 되었고, CBS 산하 콘텐츠로서는 최초의 일이 되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포함해 세바시의 모든 소셜미디어 채널 합산 구독자는 200만 명을 넘어서며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세바시의 첫 목표는 모바일 시대 뉴미디어 콘텐츠로서 사람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콘텐츠를 만들어 확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익화도 이루면서 CBS에 독립회사로 만들자고 제안할 수 있었는데, 좋은 콘텐츠로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일에 목적과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행복을 느낀 순간과 도전해 보고 싶은 것

방송 프로듀서가 13년동안 (아마 앞으로도 더!)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게다가 시청자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으면서 제작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꽤 행복한 PD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제 개인의 역량만으로 가능했던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수많은 강연자들의 도움과, 서비스를 거쳐간 제작진들, 그리고 저를 믿어주고 뒷배가 되어준 모회사 CBS까지, 이런 것들이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행운이라면, 저는 그동안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남은 도전이라고 한다면, 세바시가 하나의 회사로서 의미 있는 성취를 이루는 것입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여 세상에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고, 그래서 하나의 회사로서 지금보다 몇 배의 성장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지금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삶의 도전으로 중심을 옮기려고 합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코치들의 역할

세바시도 사실 코칭 콘텐츠입니다. 세바시는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 정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이기 때문에 그 답은 시청자 본인이 찾는 것이죠. 코치의 역할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만의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잖아요?

티칭의 시대를 넘어 코칭의 시대,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나만의 정답이 필요한 시대에, 세바시와 함께 더 나은 삶과 세상을 만들기 위해 코치 여러분들이 고객들의 성장과 성찰을 돕는 인생질문으로 멋지게 활약해주시길 바랍니다.

세바시 대표가 코치들에게 던지는 인생질문

세바시가 만든 <인생질문>이란 책이 있습니다. 모두 3권으로 구성되었고, 총 100개의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독자는 이 100개의 질문에 직접 자신만의 답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읽는' 책이 아니라 '쓰는' 책입니다. 그 인생질문 책 3권에 나오는 72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의 삶을 책으로 쓴다면 그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유는 무엇입니까?” ●

“KCA코칭역량해설” 출간 이야기

글 손미향 (제21회 코컨페 홍보자문위원 / KPC인증코치)
편집 이성미 (홍보위원회 편집위원 / KPC인증코치)

손미향

現 I.I.M.D. 대표
現 한국코치협회 전문코치(KPC)/ 홍보자문위원
現 커리어코치협회상임이사
現 KAC자격인증 기관심사위원

저서 “사람이답이다”(2020, 아가페출판사),
“시대를초월한성공의열쇠10가지”(2022, 더로드출판사)



“한국형 코칭 모델을 만들자”는 취지로 대한민국 코치들의 성장을 돕고 올바른 길을 지켜 함께 걸어갈 행복한 여정을 위해, “KCA코칭역량 해설”서가 출간되었다. 필자는 PM으로 그 과정을 촉진하고 정리하는 가교 역할을 하며, 원활한 소통과 양질의 내용이 나오도록 커뮤니케이션 하는 영광스러운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미 집필진에서는 오랜 준비 과정을 통해 구체화 작업을 해 왔고, 무엇보다도 한국코치협회 이름으로 출간하는 첫 도서가 “KCA 코칭역량해설”이라는 것이 더욱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KCA코칭역량해설”의 그 역사적인 모습을 ‘제21회 대한민국 코칭컨퍼런스’에서 선보이고자, 지난 2024년 5월 28일 키오프 미팅에서는 김영헌 회장을 비롯하여 집필진인 이한우, 임기용, 정홍천, 최동하(가나다 순) 코치뿐 아니라 최용균 이사, 진권 홍보위원장이 참석해 멋진 여정을 시작했다. 첫 회의에서는 각자 서로의 역할과 타임라인 그리고 콘셉트 등을 정하는 시간을 가졌고, 필자는 PM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거웠으나 역사를 만드는 이 의미 있는 여정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기쁨이 더 컸다. 집필진은 거의 매주 미팅을 통해 서로 의견을 조율해가며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 내내 애를 써 주셨고 전체 미팅은 총 3회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는 집필진 네 분의 노력뿐 아니라 정확한 지식이 고객에게 전달 되도록 함께해 주신 감사위원 네 분(김영신, 김재림, 박세환, 이정민)과 교정을 맡은 정익구 코치의 수고가 더해졌다. 제목, 표지 그리고 내지 디자인을 함께 정하고 집필진이 자체 탈고한 원고가 인쇄소에 전달될 때까지 애간장이 타는 시간이 지속되었다. 책을 써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권의 책이 나오기까지는 집필진의 수많은 고민과 묵상, 그리고 잠 못 드는 예민한 낮과 밤이 계속된다. 필자 또한 이미 6권의 책을 써오면서 그런 상황을 너무도

잘 이해하기에 재촉하기보다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기다렸다. 마침내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조율한
 디자인에 원고들이 얹혀지고 자랑스러운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하게 되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랑스럽다.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근사한 여정이었다.

“KCA코칭역량해설”은 우리 코치님들이 읽어가기에
 최대한 쉽게 쓰려고 애쓴 집필진의 배려가 역력하다.
 각 역량에 대한 정의 및 핵심 요소와 행동 지표, 친절한
 설명 후 핵심 요약 그리고 관련된 생각거리와 연습
 문제까지 덧붙여져 꼼꼼하게 구성되어 있고, 책을 한 장
 한 장 읽어갈수록 편안하고 기분 좋은 자극을 받는다.
 그렇게 책을 쪽 읽어가는 중에 각 역량들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안착되어 조용히 내재화됨을 느낀다.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며 수정을 반복하고 책임감을 느끼며
 집필해왔을까 싶어 감동이 전해진다. 덧붙여진 참고
 문헌은 코치들의 실력과 역량을 확장 시켜주고 손쉽게
 접근하도록 친절하게 가이드 해 준다.

이 필독서는 대한민국 코치들의 자격시험 준비뿐 아니라
 역량 강화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김영현 회장님의 리더십
 하에 출간 기획되었으며, 한국코치협회를 사랑하는
 집필진과 기획, 감수진들의 수고로 완성되었다.
 향후 이 책을 읽은 대한민국 모든 코치들의 ‘코치 다움’
 그리고 ‘코칭 다움’이 ‘한국형 코칭 모델’의 완성을 만나
 ‘코칭 문화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는 국제기구에서 펀드레이징 총괄을 하다가, 지난
 2015년,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커리어개발 센터장이자
 연구교수로서 아프리카, 남미,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온
 국제 유학생들을 코칭 하게 된 이후로 한국코치협회와의
 근사한 인연들이 가득하다. 대한민국코칭컨퍼런스
 Moderator로 강의장에서 섬기기도 했었고, 협회 대외 및
 교육기관 협력위원으로 활동하였다. 2022년에는 공익
 코칭 위원으로서 “MZ 세대를 위한 글로벌 커리어 개발



코칭과 코치의 공익 펀드레이징 파트너십”(New
 Paradigm of Global Career Coaching for Change
 Makers)이라는 제하에 대한민국 코칭 컨퍼런스에서
 영어로 강의도 했었다. 이후 2023년에는 MZ 세대를
 위한 커리어 개발 “글로벌 비상(SOAR) 코칭”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며 한국코치협회의 비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지식 나눔과 재능기부로 코칭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했다. 그리고 2024년 올해는 더욱
 특별한 방식으로 ‘제21회 대한민국코칭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되었다. 한국코치협회의 20주년 편찬사이자
 역사적 발자취를 기념하는 “KCA코칭역량해설”서가
 발간되기 때문이다. 어느새 수고한 만큼 아름다운 가을날
 하늘 같은 결과물을 맞이하게 되었다. 출간을 진심으로
 온 맘 다해 축하드리며,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어 필자도 큰 영광이었다. ©



제2회 중소기업 CEO 코칭 포럼

글 정경희 (사업위원회 비즈니스코칭사업국장 / KPC인증코치)
편집 유덕중 (홍보위원회 편집위원 / KPC인증코치)



1 (사)한국코치협회 김영현 회장
2 노사발전재단 김영수 본부장

(사)한국코치협회 사업위원회에서는 7월 17일(수)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아이리시스홀(2F)에서 'Sustainable Coaching for SMEs CEO' 라는 슬로건의 기치 아래 모인 52명의 중소기업 CEO 및 임원, 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제2회 중소기업 CEO 코칭 조찬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포럼은 실용적이면서도 열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개회사에서 김영현 회장은 '코칭을 통해 조직 구성원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고, 개인의 행복과 개인, 회사의 성장을 도모하게 되는데, 이번 조찬 포럼이 회사의 성장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했고, 노사발전재단 김영수 본부장은 '일터혁신 컨설팅 및 코칭은 현장의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물음표를 느낌표로 변환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코치협회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기조 강연에서 (사)한국코치협회 명예회장이자 (전)방송문화 진흥회 이사장인 김재우 회장은 '생각'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는데, 'VUCA 시대에서 CEO들은 각자의 생각으로 자기 지도를 만들어야 하는 세상이다. 속도의 시대, 방향의 시대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CEO 혁신 코칭 사례 발표 세션에서는 2023년과 2024년 연속해서 일터혁신 코칭을 받고 있는 아우토슈타트(주) 이상철 이사가 고객의 입장에서, (사)한국코치협회 배용관 코치가 코치의 관점에서



3 (사)한국코치협회 김재우 명예회장
4 (사)한국코치협회 정경희 비즈니스코칭사업국장

알차면서도 열정적인 발표를 보여주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포럼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71점으로, '23년의 4.46점 보다 0.25점이 개선된 숫자입니다. 특히, 기조 강연과 기업 코칭 실사례 데모 및 공유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이어 이번 코칭 포럼은 노사발전재단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하에 진행되었는데, 앞으로는 보다 더 다양하고 수준 높은 기업들이 참석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칭 포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보여주시는 중소기업 CEO 및 임원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신 협회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



사회 기여에 힘쓰는 공익코칭사업국

2024년의 여름은 '덥다'를 넘어선 '뜨겁다'의 표현이 어울릴 만큼 연일 폭염이 지속된 나날입니다. 이렇듯 지속된 폭염에도 한국코치협회 사업위원회 공익코칭사업국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어 코칭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연일 바쁘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고 임희정 (사업위원회 공익코칭사업국장 / KSC인증코치)
편집 신정순 (홍보위원회 편집위원 / KPC인증코치)



(좌)허영운 사업위원장
(우)임희정 공익코칭사업국장

공익코칭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내면에 숨겨진 잠재력을 발견하고 자기효능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탈북자 가족, 그룹 홈의 아이들, 청소년 및 대학생,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대상자들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코칭으로, 이들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익코칭은 특성상 대상자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ADHD, 우울감을 호소하는 대상자가 많아졌기에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진행해야 하는지의 어려움을 참여코치들이 홀로 온전히 견디며 코칭을 진행해왔습니다. 프로젝트를 다년간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프로젝트별로 '수퍼비전'의 필요성을 알게 되어, 2024년엔 특별히 공익코칭사업에 '수퍼비전'을 도입하는 도전을 하였고, 각 프로젝트별로 2회기부터 4회기 정도까지 그룹 수퍼비전을 진행했습니다. 그 중 삼성디딤돌가정 수퍼비전 코칭'에는 명칭을 공식화하였고, 그 외 프로젝트는 과정 안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퍼비전 코칭을 통해 대상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서로의 경험담과 자료를 나누며 하나가 되도록 프로젝트를

올해 공익코칭사업국의 총 7개의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1. 포스코한동대 멘토링 코칭 (2024.01. ~ 06. 종료)
2. 삼성디딤돌가족 수퍼비전 코칭 (2024.03. ~ 진행 중)
3. 미래인력연구원 장애인 부모코칭 (2024. 05. ~ 진행 중)
4. 흥국생명 진로코칭 (2024. 06. ~ 진행 중)
5. 남양주 희망소리 부모코칭 (2024. 08. ~ 진행 중)
6. 삼성사랑나눔회 라이프 코칭 (2024. 08. ~ 진행 중)
7. 삼성사랑나눔회 커리어 코칭 (2024. 09. 진행 예정)

삼성디딤돌가족 수퍼비전코칭





삼성디딤돌가족 참여 코치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있어 참여자들의 반응과 만족도는 매우 좋습니다. 프로젝트에 함께해 주시는 코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코치의 진정성과 책임감:

따스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성장의 여정

공익코칭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진정성과 책임감입니다. 코칭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이상의 것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따스한 마음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대상자에게 다가가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존 휘트모어가 "코칭은 코치보다 크다"라고 말했듯이, 코치의 진심 어린 마음이 전달될 때 대상자는 비로소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익코칭사업국은 높은 경쟁률 속에서도 진정성을 갖춘 코치들을 선발하려고 노력합니다. KAC, KPC, KSC 자격을 갖춘 코치들이 함께하는 코칭 여정은 코치들의 따스한 성품과 책임감이 대상자에게 전달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처럼 코칭의 성공은 대상자와 코치 사이에 형성되는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그 신뢰는 코치가 진심으로 대상자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코치들의 성장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느낄 때 자연스럽게 쌓입니다.

물론, 선발된 코치들이 모두 진정성 있게 참여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저는 코치들의 성장을 믿으며 지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칭은 단지

기술이 아닌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동반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성과 책임감은 코치로서의 품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2024년 공익코칭사업국은 대상자와 함께 성장하며, 그들과 함께 발맞추려 노력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코치와 대상자가 함께 성장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동반 성장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공익코칭은 단순한 프로젝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따스한 마음을 나누며, 그 안에서 서로를 성장시키는 특별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여정에 함께하는 모든 코치들이 고객의 성장을 진심으로 바라보며, 그들의 변화에 따뜻한 관심을 기울일 때, 우리는 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공익코칭의 미래 방향:

동반성장을 통한 따뜻하고 밝은 사회로

한국코치협회는 코치들의 성장을 위해 존재하고, 공익코칭사업국은 회복과 성장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공익코칭은 마음을 나누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따뜻한 여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며,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손을 내밀고자 합니다.

특히, 수퍼비전의 도입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코치들이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코치와 대상자 모두가 건강한 일원으로 사회에 참여하며, 함께 걸어가는 동반 성장의 문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성장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따뜻하고 밝은 사회를 만드는 데에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익코칭은 이 길의 출발점이자,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이 따뜻한 여정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며, 밝고 건강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사)한국코치협회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코칭 사업의 영향을 받아 개별적으로 공익코칭을 실천한 코치님들의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 코칭을 받은 기관의 후기를 전합니다.

진심 어린 공감 코칭 결과

글 이종민 (해명양로원 과장)

편집 이성미 (홍보위원회 편집위원 / KPC인증코치)



해명양로원은 돌볼 가족이 없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모여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 주거복지시설이다.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아오신 삶이 존중받고 해명양로원에서의 생활을 통해 인생의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참 크다.

해명양로원에 거주하는 55명의 어르신들은 양로원 생활 기간과 모습이 각기 달라 때론 마찰이 발생한다. 다양한 삶을 살아내신 분들이 전혀 모른 삶을 살았던 분들과 4인실의 한 방에 함께 모여 생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이가 좋은 가족이나 절친한 친구 간에도 갈등이 있는데, 하물며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과 같이 생활하는데 갈등이 없을까? 기존엔 갈등이

생기면 직원 상담과 프로그램을 통해 해소했다. 하지만 생활양식과 어르신들의 욕구가 변하면서 단순한 직원 상담과 서비스 제공만으로는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고, 또 다른 갈등으로 더 커졌다. 이에 해명양로원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현명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했고, '사회복지법인 해명' 사무국에서 신한은행의 후원을 받아 코칭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공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양로원 어르신들에게 관계 개선으로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코칭 사업, '동거동락'이 시작된 것이다.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이현미 코치님은 어르신의 단순한 갈등 해소만으로는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 줘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어서 감사합니다.”

-혜명양로원 공** 어르신-



집단 코칭(전후 변화)



문제가 반복될 수 있으니 남은 삶을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코칭과 공감 강의를, 이성미 코치님은 웃음
 강의와 감사 나눔 코칭으로 서로 즐겁게 소통하며 불평이
 아닌 감사를 하는 표현 방법을 찾아 보여주셨다.
 ‘동거동락’은 두 분의 코치님과 함께하는 총 10회
 교육사업으로 집단 코칭, 웃음과 감사 나눔, 감사나무
 키우기, 성과 발표회로 진행됐다. ‘동거동락’이
 진행되면서 어르신들의 다툼은 줄어들었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습관이
 생겼고, 평소의 갈등 관계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변했다.

사업 종료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관계의 불만족은
 10% 하락한 반면, 삶의 만족도는 10% 향상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어르신들의 표정에서 이미 예상은
 했지만 원내에서 진행되는 일반적인 사업의 효과가 5%인
 것에 비하면 놀라운 성과다.

김00 어르신과 정00 어르신은 처음에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대화도 하기 싫다고 해 멀리 떨어져 앉았는데
 그룹코칭 후 감사나무에 감사카드를 작성하는 동안

서로의 오해가 풀렸다고 하며 마지막 회차에선
 가까이 앉아 서로 대화하고 웃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손00 어르신은 가슴속 깊이 가수의 꿈을 한으로 갖고
 계신 분이다. 첫 코칭 때부터 마음이 활짝 열려
 또렷한 눈빛과 밝은 웃음으로 남들 앞에 처음으로
 가슴에 한이 된 노래를 몇 곡씩을 부르셨는데 남은
 인생에 힘이 생기는 것 같다고 했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라는 코칭의 성찰 질문을 통해 남은
 인생을 허망하지 않게 파스한 사람으로 기억되도록
 잘 살아가겠다는 다짐으로 우리에게 몽클한 감동을
 주기도 했다.

코칭 사업은 끝났지만 어르신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부정적인 상황을 이겨내려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고, 오늘 감사했던 이야기로 감사나무
 키우기를 지속하며 두 분의 코치님들을 그리워하고
 계신다. 이현미/이성미 코치님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에게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자기를 이해하고 감사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한
 코칭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

모집합니다!!!

코칭 문화 확산을 위해 코치들의 역량강화와 코칭 사업 확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사업위원회와 역량강화위원회를 소개합니다. 각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업무들에 큰 관심과 응원 바라며 향후 위원장 및 국장, 위원 모집 시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글 허영운 (사업위원장 / KPC인증코치), 오연영 (역량강화위원장 / KPC인증코치)
편집 김숙자 (홍보위원회 편집국장 / KPC인증코치)

사업위원회

사업위원회는 코칭 사업의 관리 체계 구축과 안정화, 분야별 코칭 사업 확대와 개선으로 (사)한국코치협회의 MVV(Mission, Vision, Value) 2030 달성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MVV 2030을 제정하였고, Mission은 '지속 성장 가능한 코칭 사업 구축', Vision은 '꼭 찬 사업 Pipe Line 완성 및 2023년 대비 2028년 사업 3배 성장', Vision은 PCCCP

(Performance, Coach/Coaching, Challenge, Commitment, Partnership)로 정하였습니다. 사업위원회는 3개 국(기획운영, 공익코칭사업, 비즈니스코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익코칭과 비즈니스코칭은 고객의 성격에 따라 대별되므로 묶어서 각 국을 소개합니다.

○기획운영국

기획운영국은 크게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획과 운영으로 업무가 나뉩니다.

기획 업무는 사업 홍보,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도입, 협약 체결로 사업 기회 발굴 지원 업무로 구성되며, 운영 업무는 사업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및 참여 코치 선발 기준 검토와 운영, 코치 Pool 관리, 표준 자료의 기준과 Data Base 유지 관리업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운영국 소속 코치들은 기본적으로 사업 기획에 대한 감각 배양 및 사업 운영과 관리 노하우 습득, 코칭 사업의 핵심 역량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공익코칭사업국/ 비즈니스코칭사업국

공익코칭은 자립준비청년, 한부모, 장애인 부모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삼성 디딤돌 가족 수퍼비전 코칭과 장애인 부모 코칭 등 총 7개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등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코칭은 사업 기회 발굴 및 확장코칭 운영관리, 프로젝트 간의 시너지 창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참여를 통하여 코칭 기획 역량 강화와 프로젝트 운영 및 관리 노하우, 코치 네트워크 확장, 다양한 계층의 성장을 통한 동반성장, 공익활동을 통한 자긍심 고취 등의 메리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역량강화위원회

역량강화위원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코칭 역량 향상과 윤리 교육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코치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현장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체계의 재구성, 윤리 교육, 새로운 진단 도구 개발 및 학술 연구를 통해 한국 코칭 산업의 발전과 코치들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위원회는 코치들의 성장을 돕는 든든한 파트너로 함께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교육국과 연구국을 소개합니다.

○ 교육국

교육국은 코치들의 '코치다움'과 '코칭다움'에 기반하여 코칭현장에서 코칭 윤리를 실천하며, 역량 향상과 코칭 스킬 강화를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자격유지보수교육 및 특별교육을 통해 코치들이 다양한 코칭 교육을 경험하고,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코칭Day를 운영하여 상호코칭을 통한 코칭 실천 시간과 코치들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칭, 북페어'와 같은 행사를 기획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코칭을 알리고,

코칭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의 활동은 우수 코치 육성에 기여하며, 협회 내 다른 위원회와의 교류를 통해 코치로서 함께 성장할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 연구국

연구국은 코칭의 학문적 연구와 실무의 융합을 통해 한국 코칭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한국코치협회는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코칭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구국의 주요 업무는 학술대회 기획 및 운영, 코칭 분야의 다양한 연구 논문 발표, 우수 사례 발굴, 학술지 발간 준비, 그리고 코칭용 진단 도구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코칭 관련 학술 연구의 촉진과 활성화를 통해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 협회의 R&D 역량을 강화하며, 코칭 분야의 우수한 논문과 사례를 발전시켜 한국 코칭 산업을 학문적 스테이지로 끌어올리는 것이 연구국의 주요 사업 과제입니다. 연구국 위원들은 학술적 열정과 협력을 바탕으로 개인의 성장과 코칭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추구하며, 정기적인 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단합을 다지며 코칭에 대한 사랑과 실천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

코치다음과 코칭다음 사이에 코나투스가 살아가고 있다

글 유영만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

편집 윤영식 (홍보위원회 편집위원/KAC인증코치)

코치다음은 코치답게 자기 존재 이유를 찾고 무엇보다도 자기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기 인식이 선행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인간다음이다. 그 뒤로 이어지는 자기관리와 전문계발, 그리고 윤리실천은 후속적 자질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다운 코치가 되기 위해서는 나만의 고유한 색다름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자기만의 스타일이자 컬러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색달라지면 저절로 남달라지는데 왜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남달라지려고 노력하다 나만의 색깔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복사본으로 죽어간다. 우리 모두는 대체 불가능한 원본이다. 대체 불가능한 원본에서 비로소 어떤 코치와도 비교불가능한 코치다음이 만들어진다. 다른 사람의 성공지도에는 나의 성장지도가 없다. 코치는 다른 사람의 성공지도를 모방해서 따라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처한 성장지형에서 고유한 성장지도를 그릴

수 있도록 조력해주는 사람이다.

코나투스는 자기의 존재이유, 즉 자기답게 인생을 살고 싶은 자유로운 욕망이자 그 욕망을 실현시키려는 적극적인 능력이다. 본래 코나투스는 소극적인 의미로 자기 존재를 지속하려는 본래적 관성이자 노력이다. 하지만 코나투스는 자기존재를 있는 그대로 지속하려는 노력을 넘어 어제보다 나은 나로 발전시키고 싶은 욕망의 물줄기이자 이를 실현시키려는 능동적인 능력이다. 코치다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코칭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단독적인 나만의 고유함은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를 마중물 같은 질문을 통해 끊임없이 탐구 여행을 떠나야 한다. 코나투스는 자기답게 살고 싶은 욕망이자 그 욕망을 실현하고 싶은 적극적인 능력이다. 욕망이 없는 능력은 공사다망하고, 능력이 없는 욕망은 허망하거나 절망적이다.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하며 공사다망하게 살다가 다 망한다. 나답게 살고 싶은 욕망의 원천은 당연히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 그 내면을 향해 질문을 던져 잠자고 있는 코나투스를 찾을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 새로운 관문을 찾아나설 수 있는 도전을 촉발시키는 역할에 코치다음의 본질이 숨어 있다. 코칭의 핵심은 코나투스를 찾아 명량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 '관문'을 발견하는 과정에 있다. 코나투스는 마추침의 산물이다. 내가 만나기 전에 나에게 유익한 에너지를 주는 사람인지, 유해한 에너지를 주는 사람인지는 알 수 없다. 내가 그 사람과 마추쳐봐야 비로소 나와 코나투스가 통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일을 시도해보지 않고서는 그 일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일인지 슬픔이나 아픔을 주는 일인지는 알 수 없다. 코나투스를 코치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단속적이고 계획적인 체험보다



유영만 교수

現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교육공학과 교수

前 삼성인력개발원, 안동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

前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교육공학 박사

저서 <코나투스>,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2분의 1>, <삶을 질문하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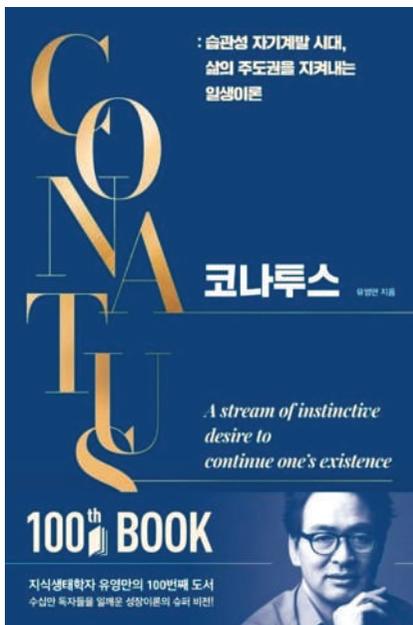




연속적이고 우발적인 경험, 노골적인 정보보다 암시적인 서사, 배움보다 익힘, 남의 인사이트보다 나의 아웃사이트, 스케줄에 떠밀려 압도당하는 크로노스보다 흐르는 시간을 멈춰 세워 의미를 창조하는 카이로스의 주관적 시간, 관념적 머리의 언어보다 경험적 몸의 언어, 한시적 욕구충족보다 영속적 욕망 추구, 계량적 성과보다 정성적 성장,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복사본보다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원본, 자기를 계발할수록 자기는 계발되지

않는 자기개발보다 한번도 되어 본적이 없는 자기배려를 통해 코나투스가 증진되는 방향으로 명량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코치가 되어야 한다.

짜여진 각본대로 '체험'하면서 파편화된 '정보'를 열심히 '배우고' '남의 인사이트'에 중독되어 스케줄 대로 물리적 시간(크로노스)을 보내면 '머리의 언어'가 생기지만 자기만의 언어로 절대로 전환되지 않는다. 한시적 결핍을 채우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면 거기서 끝난다. 저마다의 위치에서 할 수 있다는 절대 긍정으로 남과 비교하며 '성과'를 내면서 꾸미는 '복사본'의 인생을 살면서 자기개발을 계속할수록 '자기착취'가 일어나고 '자이만' 탕진된다. 이런 복사본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고 원본대로 살아가는 코나투스 인생을 촉진하는 코치가 되기 위해서는 우발적 마주침의 경험을 촉진, 깨달음이 가미된 서사나 지식을 몸으로 익히며 밖에 나가 어제와 다른 마주침(아웃사이트)을 만나 지나가는 시간을 붙잡고 의미있게 보내면(카이로스) 몸의 언어가 생기면서 자기만의 고유한 언어로 장착된다. 미지의 경지에 이르고 싶은 욕망이 능력개발을 부르며 자기답게 살기 위해 연속적인 경험을 통해 성장할수록 대체불가능한 원본대로 가꾸며 살아가면서 자기 한계를 돌보고 배려하면서 한번도 되어본 적이 없는 자기를 창조할 수 있다. ©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고객의 답은 언제나 고객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치로서의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세 분 코치님들의 소중한 현장 경험 공유를 통해 살펴보는 '우문현답' 시간!

우리들의 문제는 언제나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상담과 코칭 사이

글 최현정 (㈜위코칭 이사 / KSC인증코치)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상담과 정신 치료가 필요하고, 발전을 원하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코칭을 받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이고 칩거하며 등교를 거부하고 자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코칭을 받아도 될까? 그 경계는 무엇일까?

“이 코칭 누가 하겠어요?” 아무도 손들지 않았다.

코칭 매니저의 설명은, 한 고등학생의 어머니로부터 문의가 왔는데 아이가 등교를 거부하고,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이고, 심리 상담을 중단, 거부하는 상황이란. “제가 통화해 볼까요?” 통화 후 어머니가 아이에게 코칭을 설명하니 아이가 코칭을 받아보겠다고 했다.

학생 고객은 코칭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것, 힘든 것, 미래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한 주간 할 일을 계획했다. 해보려고 노력한 것에 대해 인정을 받으며 뿌듯해했고 좀 더 많은 것을 계획했다. 그러다 고객의 몸이 안 좋아 코칭이 몇 주 연기되었고, 그 사이 고객에게 급박한 상황이 생겼다. 상황의 일단락 후 나는 상담을 권했고, 고객은 이전 상담사를 거부했지만 내가 상담사를 소개하자 “코치님이 원하는 분이면” 하고 상담을 받았다. 변화가 있었고, 고객은 학교를 잘 졸업하고 자신이 의미 있게 생각하는 대학교에 당당히 합격해 다녔다.

순서상 상담 후 코칭이라지만 병행할 수도, 코칭을 먼저 할 수도 있다. 어떤 고객은 힘들어 상담받을 힘도 없다 했는데 코칭을 3회 정도 받고 상담받을 힘이 생겼으며 상담을 받으러 가기도 했다. 상담과 코칭을 모두 경험한 어떤 코치는 변화의 속도를 보고 코칭에 전념하기로 했다고 한다.

결국, 상담과 코칭은 모두 필요하며 우위를 따질 수 없다. 코칭은 고객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며 자기 효능감과 힘이 얻는 것이 특장점이다. 고객이 자신의 의지를 보인다면, 코칭은 유효하다. 때로는 방전된 차의 시동을 거는 것 같은 역할일지라도 그 순간 할 일을 할 뿐이다. 협력해 사람이 일어나고, 나아가고, 살게 된다면, 족하지 않은가?



진심 어린 공감 코칭 결과

글 홍의숙 (㈜인코칭 회장 / KSC인증코치)

올해로 2년 차가 된 김상무는 코칭 첫 세션에서 인사를 나누자마자 작심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이야기를 토해내기 시작했다. 전문직으로 남들보다는 쉽게 임원이 된 편인데 임원이 되고 나서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임원들은 자기표현을 아주 잘하며 서로 친한데, 본인은 말도 어눌하고 얼굴에 좋고 싫음이 너무 쉽게 드러나서 어울리기 힘들고 한편으로 무시 당하는 느낌도 받는다고 한다. 최근에는 곤란한 일도 있었는데, 중요한 업무이니 잘 준비해야 한다고 여러 번 말을 했음에도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직원이 있어서 조금 격양된 목소리로 지적했더니 회사 블라인드에 바로 누가 봐도 김상무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정도의 글이 올라왔다.

이 상황을 파악한 자신의 상사는 직원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그대로 봐주면 안 된다면서 징계 안을 내놓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김상무는 상사와 직원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져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문제의 발단이었던 프로젝트는 자신이 직접 관여한 결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CEO에게서 잘했다는 칭찬을 받았다고 한다. 대화를 나누면서 김상무의 진정성과 최선을 다하며 일에 임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힘들어하는 김상무에게 “만일 지금 그 상황이 재현된다면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라고 질문했더니 최선의 방법이었기에 더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는 후회할 일이 없다고 보면 될까요?” 하고 다시 질문하니 “네” 하기에 “잘하셨어요 후회할 일이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차피 과거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것이고 지금부터 기대하는 바를 만들어가면 되는 것 아닐까요?” 하니 그제야 얼굴이 환해졌다. 코칭을 통해 소통을 잘하고 싶고 무엇보다 피드백을 잘 하고 싶으니 도와 달라고 하면서 이미 자신은 많이 회복되었다고 웃었다.

코칭을 하면서 항상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은 멋지고 세련된 표현이 아니라 고객의 상황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이해하며 그 상황에 적합한 질문을 통해 빠르게 정리하면서 안정을 찾아가는 시간이다.

처음으로 정부기관에 코칭을 하러 갔을 때의 경험도 떠오른다. 기업 중심의 경험이 대부분이라 공무원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에 “처음이 있어야 나중에 있고, 정부기관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다음이 있지 않을까요? 리더십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엄청 다를까요?”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책임감이 느껴져 함께 나눌 것이 아주 많겠다고 하였고, 10회 코칭 후 크게 변화되어 ‘다른 사람에게 변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혁신적으로 변하니 주변에서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하면서 행복한 미침표를 찍었다. 성공적인 코칭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고객이 코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고 당당한 자세가 유지될 때 만들어 진다고 본다. 당당함을 유지하기 위해 먼저 자신이 신뢰로운 코치가 되어보자.



놀라운 ADHD 코칭의 힘

글 유정민 (별마음심리상담센터 소장 / KPC인증코치)

나는 성인 ADHD분들을 위한 코칭을 주로 하고 있다. 학부는 특수교육, 석사는 가족상담 그리고 박사는 코칭 심리를 전공했다. 처음에는 이런 다양한 전공이 한 우물을 파지 않는 것 같아 한때는 좀 부끄럽기도 했다. 그런데 우연히 읽게 된 [ADHD 코칭] 책을 통해 이러한 다양성이 고객에게 코칭 서비스를 제공할 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무엇보다 나도 성인 ADHD 당사자다. 겉으로 보이는 성취들과 달리 나 또한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다. 나는 코칭을 만나고 나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다. 나는 코칭의 힘을 믿기에 코칭을 통해 성인 ADHD분들이 가진 삶에서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특히 시간관리, 재정관리, 감정조절을 포함한 실행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 고객 스스로의 힘을 믿으며, 창의적이고, 완전성을 추구하며 무엇보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코칭의 철학을 잊지 않고 세션에 집중할 때 더 고객과 연결감을 더 깊게 느낄 수 있다.

나에게는 모든 고객이 소중하며 기억에 남지만 특별히 기억에 남는 고객 두 분과의 에피소드를 나누고자 한다. 공통적으로 내가 만나는 고객들은 삶에서 자주 실패를 경험하여 학습된 무기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때 나는 척도 질문을 통해 현재의 상태를 구체화한다. “현재 (주제)에 대한 만족도는 몇 점인가요?” 이후 “우리의 전체 코칭 세션이 끝났을 때는 몇 점이 되기를 희망하나요?, 그리고 그때는 어떤 모습인가요?”라고 묻는다. 이 질문은 해결 중심 관점인데 많은 분들께 무척 익숙한 질문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좀 더 구체화한다. “지금 상태에서 1점이 올라간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라고 묻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세션에 왔을 때 고객의 노력들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강력하다.

연구원이었던 고객님은 10세션을 마치고 이런 말을 남겨주셨다. “이렇게 나를 진심으로 믿어주고 존중해 주는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여전히 실수는 하지만 이런 나를 믿어 주기로 했어요.” 또 한 고객님은 작가셨다. 매일 작업을 조금씩 해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만났는데, 8개월 동안 단 14번의 만남을 하였다. 처음엔 자신의 일주일을 관찰했고, 이후 작업의 의미를 브레인스토밍했다. 초반에는 스케줄과 시간관리를 하였지만 차츰 작업의 범위를 확장하고 무엇보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코치님, 전 평생을 살면서 저도 몰랐던 저의 능력을 보게 되었어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너무 신기해요!” 물론 이 모든 긍정적 변화들이 코칭만의 100% 효과라고 볼 수 없다. ADHD의 특성상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 여전히 코칭의 힘을 믿는다. 존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고 믿어주는 코칭, 나는 그런 코칭이 너무 좋다! ●



나는 (마음소리) 코치입니다

글 한미옥 (소울빛 심리코칭연구소 / KSC인증코치)

편집 이성미 (홍보위원회 편집위원 / KPC인증코치)

안녕하세요. 존재의 빛을 깨우는 마음소리 코치 한미옥입니다.

코칭을 처음 만난 것은 2010년도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코칭을 알게 되었고 사춘기로 인해 소통의 어려움을 겪던 딸과 코칭 대화법을 활용해서 아이의 굳게 닫힌 마음 문이 열리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 그 사건을 기점으로 전문코치가 되어 관계 갈등을 겪는 고객을 돕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코칭을 공부한 지 14년이 된 지금, 나는 KSC 코치가 되었습니다. 코칭이 좋아서 전주에서 서울을 오가며 코칭 공부를 했고 고객을 만나면서 사람들의 심리가 궁금해서 상담을 공부했습니다. 코칭과 심리를 함께 공부하면서 코칭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코칭이 뭐길래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시도 쉬지 않고 코칭의 끈을 놓지 않았을까? 코칭은 내 삶의 변곡점이었습니다. 결혼 후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든 시기를 거쳐오는 동안 코칭은 나를 돌아보게 하였고 꿈을 꾸게 해주었고 꿈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 후 잃어버렸던 '한미옥'이라는 이름을 찾고 존재의 빛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준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코칭을 배우면서 힘든 시기도 있었습니다. 코칭 교육을 할 때는 자상하고 따뜻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공감해 줄 것만 같은데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언성을 높이고 화내고 교육생을 무시하는 태도)에서 코치답지 않은 모습을 접할 때마다 실망하고 코칭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만두지 않았던 이유는 나는 저들과 다른 코치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지속해서 코칭 공부하면서 닮고 싶은 멘토 코치님을 만나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그로 인해 내 삶의 질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코칭을 배운 초창기에 남편에게 코칭을 권유했었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그렇게 좋으면 당신이나 배워"라고 했고, 그런



남편의 태도가 서운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왜 나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을까를 고민하면서 '내가 변해야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코칭에서 배운 경청과 공감, 알아차림을 삶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남편은 저의 코칭 고객이 되었습니다. 코치인 내가 예전과 같은 삶을 산다면, 긍정적인 변화가 없다면, 코칭을 배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 실망감을 안겨줬던 선배 코치와 차이가 없다는 생각에 코치다움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코치다움에 대해 나만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인품과 실력을 갖춘 코치',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코치가 되자!' "KSC가 된 지금 당신은 인품과 실력을 갖춘 코치가 되었나요?" 대답은 안타깝게도 "Not yet" 입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아직이요.'라는 말을 할지도 모르겠네요. 이유는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음소리 코치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코치 자격증을 따고 싶는데 경제적으로 힘들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흔쾌히 허락했고 최선을 다해 그분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코치 자격을 취득한 후 돌변한 태도로 인해 큰 상처로 남아서 꽤 오랜 기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픔을 극복하는 과정 중에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톨레는 인간의 성장을 방해하는 내면의 목소리(에고의 목소리)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 목소리를 마음소리라고 명명했습니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는 나를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성장을 원하는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합니다. 마음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욕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분을 생각하면서 마음소리에 집중하고 마음소리 근원에 숨어있는 욕구를 발견하였습니다. 코칭과 상담을 받아도 자꾸만 되살아나던 상처가 사라지고 코치로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소리 카드를 개발하였고 감당하기 힘든 현실에서 한걸음 떼는 것조차 버거운 고객이 자신의 존재가 원하는 마음소리를 들었을 때 평정심을 찾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코치가 되길 잘했다는 뿌듯함이 올라옵니다.

전문코치 1만 4천 명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칭산업이 점점 발전해 가면서 다양한 곳에서 코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칭의 수요가 늘어갈수록 코치의 책임감이 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치의 책임감이란 무엇일까요? 코칭다움과 코치다움을 갖추는 것입니다.

관계구축, 적극 경청, 의식확장, 성장지원의 코칭다움은 눈에 보이는 기술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윤리실천, 자기인식, 자기관리, 전문계발의 코치다움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코치 내면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치의 책임감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었을 때 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코치로서의 인품은 어디에 속할까요? 코치다움의 영역입니다. 코치다움을 기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코치님마다 방법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치로 살아오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고객을 돕듯이 코치인 나는 나를 스스로 돕고 있는가?'입니다. '나를 스스로 돕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인식해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코칭다움의 부족한 부분은 교육을 통해 채워갈 수 있습니다. 코치다움의 부족한 부분은 코치로서 행동과 말에 대한 책임을 질 때 채워갈 수 있습니다. 코치 개인의 삶과 코칭현장에서 누가 보지 않아도 코칭윤리를 실천하고 스스로에 대해 주관적·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전문계발을 할 때 인품과 실력을 갖춘 코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코치인 나는 나를 스스로 돕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네"라는 답을 자신 있게 할 때 코치다운 코치로 성장하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끼고 고객과 'Dancing in the moment'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

각자의 삶에서 코치다움을 실천하고 계시는 코치님들의, 코치님들에 의한, 코치님들을 위한 '나는 () 코치다'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코치로서의 확실한 사명과 비전을 갖고 계신 분, 코칭 현장에서 코치님들과 공감을 나누거나 공유하고 싶은 스토리가 있으신 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싶으신 분, 나를 알려거나 누군가를 소개하고 싶으신 분은 '나는 () 코치다'에 기고해 주시면 채택되신 분께 코치협회 5만 포인트를 지급해 드립니다.

문의 : 홍보위원회 편집국장(lovesj7963@naver.com/010-9858-7963)

코칭과 AI의 미래 _ 1부

AI, 기회일까, 위협일까?

생성형 AI의 발전과 더불어 이제 막 성장단계에 접어든 한국 코칭 산업은 시장 전체의 확대와 코치 개인당 수행기회 감소 가능성이라는 면에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편집국에서는 AI가 과연 우리 코치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부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AI를 받아들인 미국 코칭 업계를 중심으로 어떤 움직임과 의견들이 있는지를, 2부에서는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과 한국적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글 유덕종 (홍보위원회 편집위원 / KPC인증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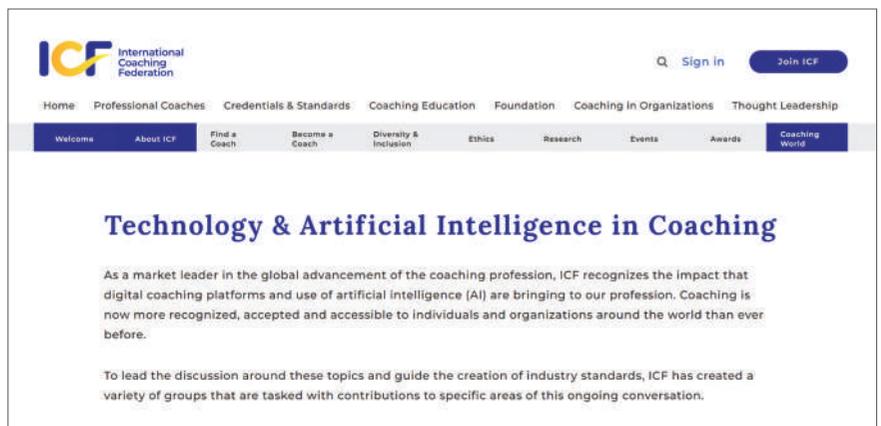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는 범위가 확대되는 가운데 선생님 역할까지 넘보고 있다. 사람을 대신해 교육뿐 만 아니라 운동, 면접까지 지도에 나서는 것이다. 생성형 AI가 사람의 행동이나 작업물에 일관된 평가 기준을 적용해 객관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점을 살려 ‘AI 코칭’ 서비스를 선보이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채용시장에서는 이미 AI 면접 코칭 서비스가 상용화되었고 운동 코칭 분야에서도 유명선수들을 AI 휴먼으로 구현해서 개인의 경기영상이나 동작을 촬영해서 보내면 AI 코치가 동작을 시연하며 답변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생겨났다.” (2023. 8.1. 이데일리)

세계적인 유명 컨설팅업체인 PWC에서는 이미 AI 챗봇과 가상 어시스턴트를 활용해서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2024. 6.17. Lauren Leed 블로그에서 요약 발췌)

2025년부터는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AI 디지털 교과서 수업이 시작됩니다. 2024년 HRD 컨퍼런스에서는 AI를 활용해 업무효율을 높인 사례들이 발표되고 있는 등 바야흐로 AI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ICF(국제코칭연맹) 역시 코칭 분야에서 디지털 코칭 플랫폼과 AI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2022년부터 AI를 기술 세션의 한 주제로 독립하여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아래 2024년 현재 ICF 웹사이트 참조) 코칭에서 AI의 역할을 이해하고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 태스크 포스를 포함한 전문 그룹을 구성하여 전문가로부터의 학습, AI 기반 코칭을 사용하는 조직과의 참여, 코치로부터 통찰력 수집, AI 통합 코칭 관행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지침 초안 작성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코치가 코칭에 나서기 전에 AI에게 자신의 고객에게 성찰에 대한 의견을 묻거나 혹은 AI를 고객의 페르소나로 삼아 시뮬레이션 하는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4년 6월 NYU에서 열린 국제코칭연맹(ICF) 글로벌 컨퍼런스에서는 “AI의 잠재력과 과제”가 주요 어젠다 중 하나였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업계 리더들은 AI 기반 도구를 활용하여 코칭 관행을 개선하고 데이터 기반 통찰력 및 향상된 접근성과 같은 이점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TOC라는 코칭 기업은 AI를 활용하여 코칭과 관련된 일상적인 작업을 자동화함으로써 코칭 프로세스를 간소화했고,

2024년 현재 ICF 웹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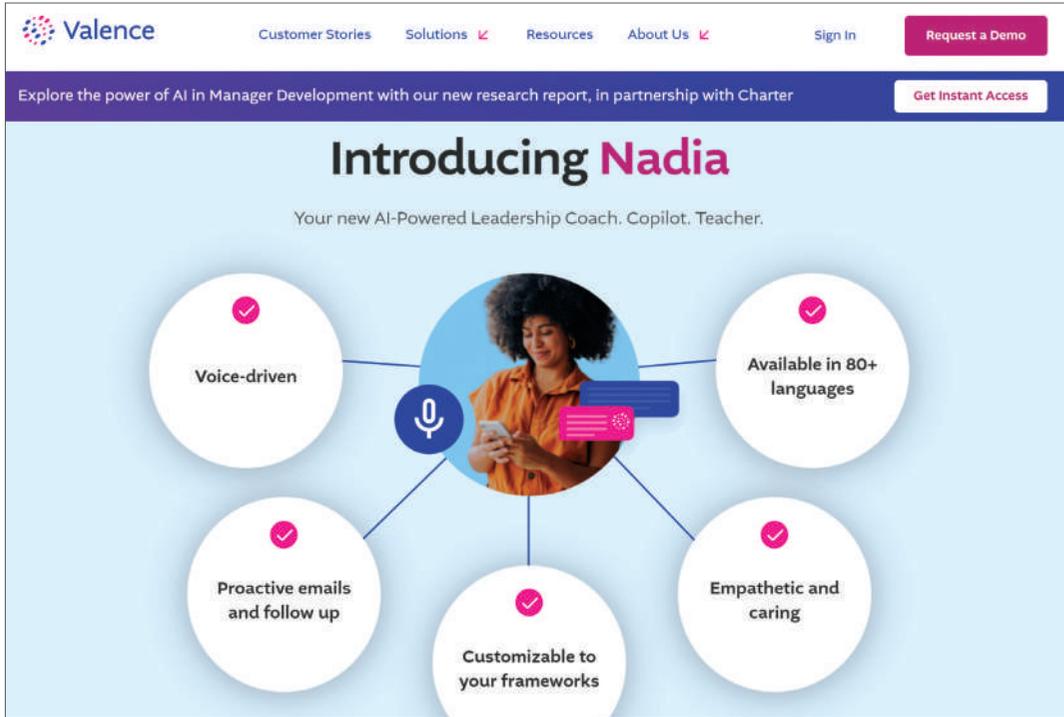


The screenshot shows the ICF website's navigation menu and a featured article. The navigation menu includes: Home, Professional Coaches, Credentials & Standards, Coaching Education, Foundation, Coaching in Organizations, Thought Leadership, Welcome, About ICF, Find a Coach, Become a Coach, Diversity & Inclusion, Ethics, Research, Events, Awards, and Coaching World. The featured article is titled "Technology & Artificial Intelligence in Coaching" and discusses the impact of digital coaching platforms and AI on the coaching profession.

Technology & Artificial Intelligence in Coaching

As a market leader in the global advancement of the coaching profession, ICF recognizes the impact that digital coaching platforms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are bringing to our profession. Coaching is now more recognized, accepted and accessible to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around the world than ever before.

To lead the discussion around these topics and guide the creation of industry standards, ICF has created a variety of groups that are tasked with contributions to specific areas of this ongoing convers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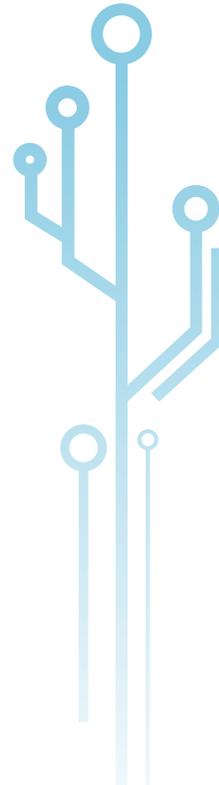
Valence 웹사이트

이를 바탕으로 코치가 개인화된 고객 상호 작용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Valence라는 기업은 Nadia라는 가상의 코치를 개발하여 전세계에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각기 그들의 언어로 코칭을 제공한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AI코치가 시장(고객)을 빼앗아 가게 될 것인가? AI 코치가 고객들에게 인간 코치보다 나은 기여를 하고, 내적 성장을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전문가들은 “윤리적 의미와 코칭에서 인간적 접촉이 상실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라는 학술적인 용어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네요. 또한 “AI가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인간 코치가 가져오는 미묘한 이해와 공감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 AI 시스템이 민감한 고객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엄격한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하다는 한계점도 지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런 난점들도 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AI는 코칭과 얼마나 가깝게 연결될까요?

결론적으로, 코칭에 AI를 도입하는 것은 낙관론과 회의론 모두에 둘러싸여 있지만, AI가 업계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NYU 컨퍼런스의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정리하자면 “AI와 코칭은 기술 발전과 효과적인 코칭을 정의하는 핵심 인적 요소 보존의 균형을 맞추는 통합의 길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깨어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되겠지요? AI에게 정복당할 것인가? 이용할 것인가의 질문이 될까요?

다음편에서는 AI가 한국시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전문가 인터뷰와 함께 다양한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코치님들의 힐링 스페이스는?

정리 김숙자 (홍보위원회 편집국장 / KPC인증코치)

빠르게 변하고 복잡한 세상,
편안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할 때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진행된
〈나만의 힐링 스페이스〉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책 냄새나는 서점, 전망이 좋은 카페 등 사색하기 좋은 조용한 장소, 자연을 느끼며 산책하기
좋은 숲이나 길을 가장 많이 추천해 주셨고, 예술가들의 참신한 발상과 생각들에 '아하!
모멘텀'을 느끼게 되는 미술관도 있었고, 경치를 감상하기 좋은 한강의 잔디도, 남들보다 일찍
도착한 직장인의 자리에서 마시는 커피처럼 소확행도 힐링의 요소로 뽑아 주셨습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신 코치님들 감사합니다! 🍀



※ 상기 장소들은 시각적 이미지의 다양화를 위한 것으로 추천에 선정된 열 분의 응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경영학 석사와 국내·국제 코치 자격 동시 취득

국민대 MBA 리더십과코칭전공

2025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국내 최초 리더십과 코칭 전문가를 위한 특화된 MBA

1년 안에 과정 이수, 전 과정 토요일 수업으로 집중화 교육

> 국내/국제 코치 자격증과 석사 학위 동시 취득

- 국내 대학 최초 ICF의 LEVEL 2 인증
- 정규 교과목 이수 국내코치자격(KAC/KPC)과 국제코치자격(ACC/PCC) 취득
- 국내 코칭 권위 교수진들에 의한 이론과 실습의 체계적 학습

> 리더십 과학적 지식 + 실무 역량 향상

- 리더십 고전부터 최신 트렌드까지 인사이트 함양
- 리더십 개발 및 육성의 체계적 학습을 통한 리더십 전문가 육성
- 이론과 실무를 접목한 커리큘럼으로 현장에서의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 능력 배양에 초점

> 재학 중 코칭 실습 지원을 통한 코칭 역량 향상

- 체계적 코칭 프로세스 체험 및 학습
- 1, 2학기 재학생 대상 체계적 코칭 실습 제공
- 3, 4학기 재학생 대상 유료 고객 코칭 기회 제공

> 국내 리더십 전문가들로 구성된 막강한 동문 네트워크

- 국내 리더십/인사관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막강한 동문 네트워크
- 국내 코칭 산업을 선도하는 코칭 동문 네트워크의 체계적 지원

개설 교과목

조직관리와 전략 · 조직행동론 · 조직문화와리더십
· 조직갈등관리와리더십 · 의사결정과협상

리더십과 조직개발 · 리더십이론과모델 · 리더십개발방법론 · 리더십진단과코칭
· 리더십연구방법론 · 조직개발과리더십코칭
· 팀리더십개발과코칭

코칭 이론과 실습 · 코칭핵심역량 1, 2 · 코칭심리학 · 코칭실습 · 그룹코칭
· 심화코칭 · 커리어코칭 · 코칭의구조와프로세스
· 비즈니스코칭사례분석 · 리더십개발을위한티코칭

※ 교과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문 추천사

이도한 (2017 입학) 삼성전자 인재개발원 사내교수, 경영학 Ph.D.

회사에서 매일 리더들을 만나면서 리더십과 코칭을 강요하다 보니 이 과정이 조직에 있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많은 기업에서 코칭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리더십과 코칭을 함께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 시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조직에서 성장의 갈증을 느낍니다. 나와 동료의 잠재력을 찾고 이끌어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나의 역량이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직에서 나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기회를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서현경 (2018 입학) OTIS Korea HR Talent 팀장

HR 업무를 하며 직간접적으로 접해오던 리더십과 코칭은 늘 제대로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는 바람이 있는 분야였습니다. 국민대 리더십과코칭전공은 리더십 개론에서 진단과 개발, 코칭 이론과 다양한 실습까지 잘 조화된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리더십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과 함께 통찰력까지 높일 수 있는 값진 시간을 제공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동일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 동기들과 나누는 지식 공유와 성찰이 저를 한 단계 더 성장하게 해 주었습니다.

진권 (2019 입학) 더성장인 대표, KPC, PCC

VUCA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기업 영업 현장에서도 코칭 대화를 통해 구성원의 니즈를 읽고, 이를 충족시키는 리더십 역량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영업팀장으로서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찾은 해결책이 바로 리더십과코칭전공입니다. 조직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 리더십과코칭전공의 이론과 실무가 통합된 체계적인 교과목을 접하고 이를 현장에서 적용해 보는 시너지를 경험하면서 커리어에서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이와 함께 리더십과코칭전공 만의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 발전과 집단지성의 힘을 느끼며 배움에서 나눔까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석미정 (2021 입학) 발렌시아가 코리아 인사사무

국민대학교 리더십과코칭전공 MBA과정은 리더십, 조직문화 그리고 코칭의 특화된 분야를 다루는 특별한 과정입니다. 과정에서 배운 다양한 리더십이론과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는 회사에서 인사관리를 함에 더 깊은 인사이트를 가져다 주는 데 유용하였고, 코칭은 제 자신에 대한 변화 그리고 팀원들과의 소통 및 동기부여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교수진과 다양한 분야의 교수분들과 교류를 통해 인생을 성찰 해 보고 의미있는 성장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적극 추천합니다.

원서접수

2024. 10. 21.(월) ~ 11. 11.(월)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지원자격

국내·외 4년제 대학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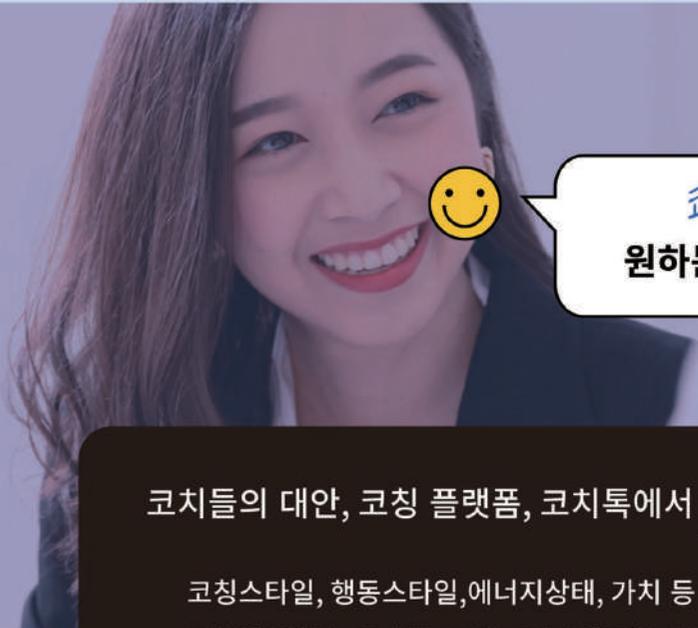
*신입학 : 학부 전공 및 계열 제한 없음

지원방법

원서접수 : 인터넷접수 <http://mba.kookmin.ac.kr>

입학문의 : 경영대학원 교학팀 : 02-910-6623

코치톡 CoachTALK



코치님, 고객 찾기 힘드시죠?
원하는 고객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코치들의 대안, 코칭 플랫폼, 코치톡에서 고객을 소개해드립니다!
코칭스타일, 행동스타일, 에너지상태, 가치 등 빅데이터 분석 ✓ 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코치를 AI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찾아서 매칭해드립니다.

BEST Coach



코치를 위한 혜택

1. 나의 홍보를 대신해 준다
2. 코칭스케줄 관리가 편하다
3. 고객 소통과 관리가 편하다
4. 실행점검과 변화 관리가 효과적이다.
6. 고객분석을 AI가 자동으로 해준다

- ✓ 베스트 코치로 활동!
- ✓ 효과적인 코치소개!
- ✓ 생생한 실행계획 플랜!
- ✓ 코치 영상, 세미나 등 고객모집 편리

- ✓ 코칭스타일 진단
- ✓ 행동스타일 진단
- ✓ 에너지 상태 진단
- ✓ 가치진단 등으로 고객분석

우리가 만드는 2025 코칭 키워드

4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코치님들은 앞으로 어떤 코칭을 하고, 어떤 코치가 되고 싶으신가요?

2025년 새해를 준비하며 사칙연산 질문으로 코칭다움과 코치다움을 다짐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응답을 한국코치협회가 진심을 담아 응원 드리겠습니다.

★2025년! 나는 어떤 코치다움과 코칭다움을 소망하고 있을까?

코칭을 하면서

+ 새롭게 얻고 싶은 것은?

- 버려야 할 것은?

코칭로서

x 극대화 하고 싶은 나의 능력은?

÷ 나누고 싶은 것 또는 가치는?

= 한 단어로 나를 표현한다면?



설문기간 : 2024. 10. 10. ~ 11. 30.

제출방법 : 네이버폼(QR코드를 찍어주세요)

